

광주공장 생산기능 축소 우려

삼성 이견희 회장 '생활가전 해외 이전' 발언 파장

경쟁력 낮은 생산라인 동남아 등 옮길 듯 "광주는 내수·고부가 제품 수출단지 육성"

삼성그룹 이견희 회장의 '생활가전 해외 이전' 발언으로 광주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연간 매출 3조원으로 광주지역 경제의 20%를 차지해 온 삼성광주전자 제품 수출을 포기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 생산라인을 개도국으로 넘길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내수 및 프리미엄급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고, 저가제품은 해외생산을 돌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의 늪에 빠진 생활가전=삼성전자의 생활가전 분야는 수년째 만성적인 적자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작년 삼성전자는 6조9천300억원의 영업이익과 7조9천300억원의 순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가전 부문은 1천8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 부문은 2002년 흑자를 마지막으로 2003년 1천100억원, 2004년 500억원, 2005년 900억원, 작년 1천800억원 등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생활가전총괄 소속 임직원들 사이에 패배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하게 됐고, 이로 인해 생활가전이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급기야 삼성전자는 작년 말에는 매킨지 컨설팅 등을 통해 생활가전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가는 등 침체된 생활가전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삼성전자 생활가전 변화 오나=이날 이 회장의 발언을 두고 삼성전자가 생활가전사업에 중대한 방향전환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수익이 적은 생활가전 일부 분야를 접고 다른 주력업종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

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생활가전 분야를 포기하겠다는 것보다는 가전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삼성그룹도 "이 회장 말씀의 의미는 가전사업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외국의 나이키(Nike)의 경우와 같이 본사는 R&D,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배치하고 생산기능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해외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가전제

품 중 수출용의 비율은 52% 정도인데, 이 수출용 비율을 점차 낮추고 생산비용이 저렴한 동남아 등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현지 제조업체를 통해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내수시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공장은 현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등 해외법인에서 생활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광주전자 어떻게 되나=삼성광주전자의 경우 지난 2004년 수원사업장

에 있던 에어컨과 세탁기 공장이 광주로 이전하면서 냉장고·청소기 등 4대 생활가전을 생산하고 있다.

매출액은 지난 2005년 3조원, 2006년 3조1천억원에 이어 올해 지난해 대비 5~10% 신장이 예상된다. 생산유발효과는 9천600억원, 고용창출효과는 1만2천400여명에 달한다.

지역내 협력업체는 107개사로 전국(276개)의 38.8%에 이르며,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28억원, 법인세는 110억원였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생활가전 구조조정은 2004년 수원사업장 협력업체들의 이전과 함께 마련된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면서 "삼성광주전자는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를 가동, 내수 및 프리미엄급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저가제품은 해외로 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삼성광주전자 전경. 삼성광주전자는 2006년 기준 매출액 3조1천억원에 생산유발효과 9천600억원을 기록, 광주 경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여수엑스포 실사 한달 앞으로...

● 온 국민 한마음으로

콘서트·릴레이 서명... 유치열기 전국으로 확산

2012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실사 준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진행된다는 점이다. 또 올해 12월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전국에서 계속돼 유치 열기를 높여 준다. 지역위주 행사에서 유치열기를 온 나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많아진 것이 지난 2010엑스포 유치 준비와 비해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오는 4월 9일~12일 여수시 신항 등 엑스포 개최 후보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의 현지실사는 여수공항 환영행사로 본격 시작된다. 11일 실시단이 여수 공항에 도착한 후 시청으로 이동하는 30여분 동안 연도주변에는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나와 뜨거운 환영과 함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기를 전하게 된다.

시민 2만여명 실사단 환영

이어 시민대표들은 실사단을 만나 엑스포 개최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당일 거북선축제와 시민환영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유치열기를 표명한다.

실사단은 방문 이틀째인 4월 12일 개최지, 교통, 사후 활용계획, 숙박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개최의지를 확인하고 주변 여건을 항공시찰한 후 엑스포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이어 한·중·일 음식 큰 잔치 및 체험 민속축제 참가를 끝으로 실사를 마친다.

이에 맞춰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는 엑스포 개최를 염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 전남지역 일원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2개 시·군을 순회하는 '자전거 릴레이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사이클 서명단'이 하루에 2~3개 시·군을 방문해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는 주요 기관장과 주민 등의 서명을 받아 이를 여수시에 전한다. 이 서명부는 여수를 방문하는 실사단에 건네져 지역주민들의 엑스포 유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전하게 된다.

실사를 앞두고 전국적인 행사도 계속된다. 오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 밤 8시까지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는 여수엑스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유치열기를 높이기 위한 '도전 기네스 퍼즐대회 및 기념콘서트'가 열린다. 행사에는 2만 여명이 참가하며 기네스 2012 퍼즐조립과 인기가수의 공연을 즐기며 여수엑스포 개최의지를 다지게 된다.

서울~대전~여수 사이클 투어

또 360명의 정상인과 장애우가 한 조가 돼 사이클로 전국을 순회하는 '2012 트윈(Twin) 전국 사이클 투어'가 4월 1일~11일까지 1일 45km씩 500km를 달려 여수엑스포 개최의지를 방방곡곡에 알린다. 4월 1일 서울 상암경기장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인천~수원~천안~청주~대전~논산~전주~남원~구례~순천을 거치며 엑스포 홍보활동을 벌인 후 같은 달 11일 여수시에 도착해 BIE 실사단에 유치열기를 담은 상징물을 전달한다.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이벤트는 '2012 여수엑스포 관광열차' 운행이다. 4월과 8월 두 차례 500명씩 참가하는 엑스포 관광열차는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해 무박 2일동안 실시된다.

전국 축제현장 홍보관 운영

관광열차는 여수 향일암과 해상유람선 투어, 오동도 엑스포홍보관, 진남관 방문을 통해 대회준비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 2만 120원만 자신이 부담하면 되는 특별한 탐방코스의 1차 참가자들은 이미 2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돼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실사가 끝난 후에도 엑스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2012 엑스포 카페테리아'가 운영된다. 3월 구례산수유꽃축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주요 축제 및 행사장에 엑스포 홍보관을 운영해 유치열기를 조성하기 위한 연중 이벤트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지하 문화전당 문광부 개입' 공방

광주시의회 워크숍 "각본 따라 당선작 결정"...문광부선 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 문광부가 국제건축설계경기에 맞춰 사전에 지하화를 기획했다는 '사전 지하화 방침' 논란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일부 지역 전문가들은 설계 당선작이 각본에 의해 추진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사실을 규명하고, 의혹이 진실로 밝혀졌을 때는 원천무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광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전당 설계 당선작은 국제건축가연맹(UJA)에 의해 모든 절차를 인증받아 진행된 국제건축설계경기에 의해 뽑힌 작품으로, 사전 지하화 방침 주장은 사업 주관 기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광부는 또 당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말을 실명으로 소개, 사전 기획 논란에 강력 반발했다.

논란은 지난 2일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워크숍에서 류

재한 전남대 교수가 문광부의 문화중심도시 홍보 책자 내용을 소개하며, "연구원 2명이 주고받은 전당의 지하설계 이야기가 결국 1년 후에 당선작에 반영됐다"며 "몇몇 엘리트가 정한 내용이 당선작에 직접처럼 내려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류 교수의 발언 이후 8일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는 '문광부는 문화전당 지하설계를 각본에 의해 추진했다는 의혹

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특위는 시민과 함께 지하설계 사전조사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광부 관계자는 "지하 위주의 설계는 2000년을 전후로 국내에 선을 보인 것으로, 특위가 문제삼은 홍보책자 내용은 연구원들이 설계공모 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부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광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도 없이 의혹성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성명서를 발표한 측에서는 근거를 제시하고, 아닐 경우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중동 친선협 의원 5명

이란 방문 엑스포 유치활동

김성근 의원(여수갑) 등 국회 한·이란, 한·중동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 5명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위해 9일부터 14일까지 이란을 방문한다.

김 의원 등은 이 기간동안 A.K.라프산자니

국정조정위원장(전 대통령)과 이란·한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설명하고 '중동의 중추국인 이란측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는 박희태 국회부의장(한나라당)과 손봉숙 의원(민주당), 노현송 의원(통합신당모임),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 등이 동행했으며 일부 의원은 세네갈 등도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지리산한약방

www.jir.wo.to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주세요

TEL.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재미문 다이어트 생식량트

원통산염 크루즈

지리산 한약방 (智異山韓藥房)

지리산한약방